

2019년 7월 1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개별 업종별 이슈 여파로 매물 출회 다우 운송지수 -3.59% Vs.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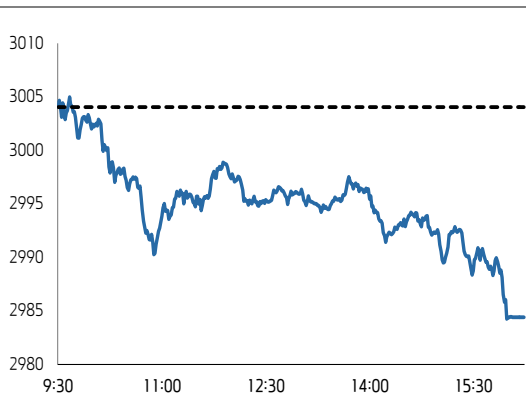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혼조 출발. 그러나 운송업종이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매물 출회된 모습. 장 후반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되었으나 영향이 제한. 다만 의결권 있는 에스터 조지 캐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이번 달 금리인하는 아직 필요 없다” 라고 언급하자 낙폭 확대되며 마감(다우 -0.42%, 나스닥 -0.46%, S&P500 -0.65%, 러셀 2000 -0.72%)

오늘 미 증시는 운송업종과 소매유통업체가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와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특징. 운송업종은 철도 운송회사인 CSX 가 부진한 실적과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후 급락하자 여타 운송회사들이 동반 하락. 이 결과 다우 운송지수는 3.59% 급락. CSX 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장기화가 물류 수송에 부담을 줘 매출 둔화를 보였다고 주장. 여타 투자은행들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미 증시 강세를 이끌어 왔으나,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한편, 아마존의 올해 프라임 데이 매출이 기록적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프라인 소매유통업체들의 경우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향후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반면, 네델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 이 예상보다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발표하는 등 견고한 실적 발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약세를 보였으나 Logic 분야 성장이 이를 상쇄 시켰다고 언급. 더불어 7 나노 이하 공정 로직 분야에서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어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은 밝다고 주장. 이에 힘입어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8% 상승. 한편, 의료 장비업종도 강세를 보였음. 이는 에봇이 개선된 실적과 연간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강세를 보인데 힘입은 결과. 이 영향으로 관련 종목 및 바이오 업종도 동반 상승. 대체로 미 증시는 실적 개선 기업들의 경우 강세가 제한된 가운데 부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경우는 급락하는 등 하방 요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이 특징.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72.92	-0.91	홍콩恒生	28,593.17	-0.09
KOSDAQ	666.28	-1.21	영국	7,535.46	-0.55
DOW	27,219.85	-0.42	독일	12,341.03	-0.72
NASDAQ	8,185.21	-0.46	프랑스	5,571.71	-0.76
S&P 500	2,984.42	-0.65	스페인	9,284.20	-0.99
상하이종합	2,931.69	-0.20	그리스	868.01	+1.41
일본	21,469.18	-0.31	이탈리아	22,079.38	-0.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넷플릭스 시간 외로 12% 급락

철도 운송회사인 CSX(-10.27%)가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급락 했다. 유니온 퍼시픽(-6.05%), NSC(-7.48%), UPS(-3.20%) 도 동반 하락 했다. 이 여파로 다우 운송지수가 3.59% 급락했다. 항공 방위산업체인 텍스트론(-9.53%)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하락 했다. 유나이티드 테크(-2.32%), 록히드마틴(-1.88%)도 동반 하락 했다. 아마존(-0.89%)은 기록적인 프라이머리 매출 을 기록했으나 하락 했다. 이 여파로 노드스트롬(-3.97%), 갭(-2.55%) 등 소매판매 업종도 부진했다.

네델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6.18%)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특히 2019년 매출 전망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마이크론 (+0.72%), 인텔(+0.45%), 브로드컴(+0.33%)은 물론 램리서치(+1.01%), AMAT(+0.46%), KLA-텐코 (+2.44%)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의료 장비 업체인 애벗(+3.13%)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전망치 상 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했다. 이 결과 바이오 업종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0.97%)는 시간외로 12% 급락 중이다. IBM(-0.32%)은 시간외로 2%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14%	대형 가치주 ETF(IVE)	-0.86%
에너지섹터 ETF(OIH)	-3.06%	중형 가치주 ETF(IWS)	-0.87%
소매업체 ETF(XRT)	-1.09%	소형 가치주 ETF(IWN)	-1.01%
금융섹터 ETF(XLF)	-0.85%	대형 성장주 ETF(VUG)	-0.48%
기술섹터 ETF(XLK)	-0.26%	중형 성장주 ETF(IWP)	-0.3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99%	소형 성장주 ETF(IWO)	-0.54%
인터넷업체 ETF(FDN)	-0.42%	배당주 ETF(DVY)	-0.49%
리츠업체 ETF(XLRE)	-0.5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14%
주택건설업체 ETF(XHB)	-0.9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0%
바이오섹터 ETF(IBB)	+0.10%	미국 국채 ETF(IEF)	+0.47%
헬스케어 ETF(XLV)	+0.02%	하이일드 ETF(JNK)	-0.04%
곡물 ETF(DBA)	-0.30%	물가연동채 ETF(TIP)	+0.21%
반도체 ETF(SMH)	+0.36%	Long/short ETF(BTAL)	+0.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1.79	-1.15%	-2.63%	+0.90%
소재	364.12	-0.88%	+0.93%	+1.05%
산업재	647.63	-2.17%	+0.51%	+0.75%
경기소비재	978.51	-0.90%	+0.48%	+3.67%
필수소비재	616.39	-0.13%	+0.67%	+3.05%
헬스케어	1,066.60	+0.02%	-1.43%	+0.07%
금융	462.15	-0.88%	-0.47%	+2.20%
IT	1,411.65	-0.29%	+0.22%	+4.09%
커뮤니케이션	169.22	-0.88%	-0.35%	+3.45%
유틸리티	308.26	+0.43%	-0.37%	+1.39%
부동산	231.92	-0.40%	-2.06%	-0.9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9%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0%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83 계약) 여파로 0.70pt 하락한 271.1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9.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7 월 들어 KOSPI 는 2.71%, KOSDAQ 은 3.51% 하락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낙폭이 컸다. KOSDAQ 의 경우는 일부 바이오 업종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 낙폭이 컸던 반면 KOSPI 의 경우는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지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물이 출회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일부에서는 한-일 무역마찰로 인한 부진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실제 일본의 규제가 시작된 7 월 4 일 이후 KOSPI 는 1.10% 하락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외국인인 일본의 규제가 시작된 이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 1 조원 넘게 순매수 하며 관련 이슈에 반응이 제한된 모습이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가 부진한 요인으로 일부 바이오 업종 이슈에 따른 KOSDAQ 의 급락,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우려, 한반도 지정학적 이슈 등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7 월 4 일 이후 KOSPI 는 의약품(-9.66%), 건설업(-9.33%)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결국 한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인하,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마찰 등 여러 불확실한 이슈가 산재된 가운데 개별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이 부진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오늘의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업종의 강세, 연준의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 등을 통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부진

6 월 미국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126.5 만건)이나 예상치(126 만건)을 하회한 125.3 만건을 기록해 부진한 결과였다.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착공 허가건수도 전월(129.9 만건)이나 예상치(130 만건)을 하회한 122 만건을 기록해 최근 2 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했었다. 그러나 미 에너지 정보청의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 발표 이후 하락 전환 했다. 에너지 정보청은 원유재고가 지난주(950 만 배럴 감소)와 예상치(360 만 배럴 감소)를 하회한 310 만 배럴 감소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가솔린 재고가 360 만 배럴, 정제유가 570 만 배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각각 240 만 배럴 감소와 40 만 배럴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을 크게 상회하자 수요 부진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전환 했다.

달러화는 주택지표 부진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표하고, 일부 연준위원의 금리 동결 언급도 달러화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및 미국 주택지표 부진여파,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로 하락 했다.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이전보다 약간 하향 안정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라고 발표 했다. 그러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더불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매파성향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키 연은 총재는 “이번 달 금리인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라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금은 달러 약세로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이어지며 소폭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0% 철근도 0.0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78	-1.46	-6.04	Dollar Index	97.227	-0.17	+0.13
브렌트유	63.66	-1.07	-5.00	EUR/USD	1.1224	+0.12	-0.24
금	1,423.30	+0.86	+0.76	USD/JPY	107.99	-0.23	-0.43
은	15.971	+1.87	+4.89	GBP/USD	1.2429	+0.18	-0.58
알루미늄	1,847.00	-0.16	-0.16	USD/CHF	0.9872	-0.07	-0.23
전기동	5,980.00	-0.53	+0.67	AUD/USD	0.7011	-0.01	+0.75
아연	2,474.50	-0.30	+3.06	USD/CAD	1.3053	-0.27	-0.22
옥수수	441.50	+0.06	+0.46	USD/BRL	3.7625	-0.18	+0.20
밀	505.50	-0.39	+0.15	USD/CNH	6.8785	-0.04	+0.09
대두	900.50	-0.61	-1.34	USD/KRW	1181.30	+0.31	-0.03
커피	107.40	+1.75	+1.42	USD/KRW NDF1M	1179.65	+0.08	+0.3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043	-5.92	-1.79	스페인	0.443	-4.40	+0.80
한국	1.542	-2.80	-2.30	포르투갈	0.505	-4.30	+0.70
일본	-0.121	-0.20	-0.30	그리스	2.220	-0.50	-4.40
독일	-0.290	-4.60	+1.70	이탈리아	1.591	-1.90	-14.30